

EXHIBITION

2011 / 05 / 09  
ART IN CULTURE



김홍경 <꽃> 2010

봄을 맞아 국내외 작가 11명이 '꽃'을 주제로 각자 작품을 선정하고 전시를 연다. 뚜렷한 색깔로 작업하는 이들은 '꽃'이란 동일한 주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다. 이들에게 꽃은 관조와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자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화 시키는데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소재이다.

참여작가 김종학 김홍경 김승영 구성연 박진우 이희중 이지영 차규선 황현진, Antonio Ballester Moreno, Dzine

055) 287-2203